

# 100년 전 그날의 함성!

##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의 대한독립만세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지다



### 의향 고창! 독립운동가 73인

강대선	고제천	김용인	박도경	신화산	유관술	이정오	홍익선
강대영	고치법	김재관	박명서	안관숙	유희영	판공일	황영구
강수원	김공삼	김재구	박석권	안순경	이석렬	정동원	황영중
강영문	김대옥	김재영	박영관	안행팔	이용욱	정시해	
강종회	김동환	김재화	박정숙	오동균	이용태	정진욱	
고석진	김방수	김진호	박인종	오의관	이의신	정창희	
고순진	김상흠	김진규	송한룡	오장환	이종주	정희익	
고예진	김승옥	김창희	신용수	원용학	이종택	정최구	
고용진	김영수	노병희	신용수	유금동	이준형	정최구	
고제남	김영완	노진	신종	유장렬	이철	최중오	

## “대한독립 만세”

한반도 첫수도 고창에서 3·1운동 100주년 만세운동 재현



“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알려나가는데 노력할 것”

3월1일 오전 고창군청 앞. 크고 작은 태극기 수백 개가 거센 바람에 휘날리며 군청 광장을 가득 채웠다. 교복을 입은 학생들을 비롯해 각양각색의 군민 천여명이 한목소리로 대형 태극기를 바라보며,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

100여년 전 일제의 횡포에 맞서 만세 운동이 일어났던 고창읍내는 또 다시 팽력은 태극기와 만세 소리로 뒤덮였다. 독립을 선언한 태극기 물결은 쉬지 않고 만세를 외치며 고창군청 광장까지 행진했다. 만세 소리가 함께 밀려올 때마다 거리에 선 군민 수천명은 함께 태극기를 흔들며 대한민국의 독립을 외쳤다.

고창군이 1일 오전 10시 동리국악당에서 군민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운동 100주년 기념식-우리가 지킨 100년의 역사, 희망의 시작’을 열었다.

이날 조순임님의 고창독립운동가 유신양승으로 시작된 기념식에선 고창군수의 기념사, 독립유공자 후손의 3·1운동 경과보고, 관내 청소년 대표 33명의 독립선언문 낭독, 3·1절 노래제창,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의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100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룬 나라

〈독립선언을 한주년〉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

4352년 삼일절 백동에부처

이후 두루마기와 한복, 교복 등 다채로운 복장으로 참여한 군민 1000여 명이 읍내거리를 행진하며 100년 전 만세운동을 재현했다.

행진중에는 일본순사와 독립운동가의 대치 상황극도 진행됐다. 특히 거리의 주민과 상인들도 이들의 행렬에 동참하며 태극기를 흔들고 만세를 외쳐 장관을 이뤘다.

행사 마무리는 민족 대표 노래인 아리랑을 다함께 부르며, 의향 고창의 독립운동가들을 기렸다. 오후에는 동리국악당에서 ‘태마공연-봄 그리고 다시 봄’도 열려 비장했던 당시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앞서 고창군수는 ‘새 봄이 온 세상에 다가와 모든 생명을 다시 살려내는구나’라는 3·1독립선언서의 스물 일곱번째 문장을 필사해, 페이스북에 인증하기도 했다.

고창군수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군은 일광 정시해 의사 등 73명의 독립운동가들이 활동한 정의로운 고창이다”며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애국선열들의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알려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 고창군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

② 전라도 독립운동의 산실 ‘홍동장학당’



고창군 성내면 농협 맞은편. 좁다란 언덕길로 50m쯤 올라가면 고즈넉한 한옥건물과 마주한다. 너른 평야를 바라보고 언덕위에 자리한 건물은 그 자체로도 단정한 품격이 느껴진다.

홍동장학당은 3·1운동의 도화선이 된 ‘2·8독립선언’을 이끌었던 근촌 백관수, 백낙윤 등 96명의 장학회원들이 상해임시정부에 보낼 독립군자금 모집과 인재 양성 등 항일 운동을 위해 지었다.

이후 고창지역 독립만세운동을 주도했고, 상해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전달했으며, 장학회원들이 출자한 자금으로 성내보통학교와 고창고보(고창고등학교 전신)의 설립을 후원했다. 민족교육진흥과 장학사업을 펼쳐 반일 독립사상을 고취시킨 전라권 독립운동의 산실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7월 국가보훈처가 A급 현충시설로 지정했고, 전통 한옥건축 방식을 고스란히 따랐던 건물의 가치도 높아 전북도 유형문화재 140호로 지정돼 있다.

홍동장학당에 걸려 있는 ‘獎學堂(장학당)’ 현판은 영재 송태희의 글씨다. 송태희는 1920년 고창 오산학교한문 교사로 재직하면서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일본의 정책에 맞서 한글 교육과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후에는 양태승과 함께 지역유지들을 설득해 고창고보를 설립하는데 앞장섰다.





## 고창 전통시장에서 꼭 먹어봐야 할 '복분자빵' · '장어빵' · '바지락라면' 인기

장어빵 귀여운 겉모습에 셀카 · 인증샷 성지 등극  
바지락라면 음주 후에 찾는 해장라면으로 입소문



처음 보면 입가에 배시시 미소가 지어지는 빵. 한 입 크게 베어 물면 건강과 맛 두가지를 사로잡을 수 있는 빵. 귀여운 겉모습에 반하고, 달콤 고소한 맛에 평생 반하는 마성의 빵이 고창에 있다. 산·들·강·바다·갯벌이 모두 있는 고창의 매력을 맘껏 느낄 수 있는 고창전통시장이 최근 '장어빵' · '복분자빵' · '바지락라면'을 선보여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장어빵**은 고창 특산품인 풍천장어 모양을 본떠서 만들었다. 귀여운 얼굴에 특유의 꼬리가 돌보이면서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간식의 장점을 극대화 했다. 장어빵은 치즈맛과 카레치즈맛 2종류. 빵 속에는 딸 앙금에 계피와 견과류를 더해 그윽한 향과 씹는 맛까지 느낄 수 있다.

**복분자빵**은 복분자 특유의 알알이 맺힌 열매를 표현한 모습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특히 복분자크럼, 고구마 슈크림, 팥크림 슈크림, 계피팥크림, 팥크림 콩팥 등 다양한 맛을 선택할 수 있어 가족끼리, 연인끼리 나눠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바지락라면**도 빼놓을 수 없다. 고창군은 지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한다. 특히 드넓은 갯벌에서 잡은 바지락은 국내 바지락 생산량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전국최대의 바지락 산지다.

고창군 전통시장에서 파는 '바지락 라면'은 싱싱하고, 살이 통통한 바지락을 듬뿍 넣어 깊은 맛을 낸다. 적당히 짭짤하고 뒷맛은 시원하다. 해풍을 맞은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 기분 좋은 듯한 매운맛도 있다.

적당히 간이 면발은 쫄깃하고 국물은 구수해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우게 된다. 주문과 동시에 반나절 이상 해감한 바지락과 채소, 면을 넣고 삶아 내기 때문이다. 껍질째 붙은 바지락을 가먹는 재미도 쏠쏠하다.

고창군은 전통시장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고창전통시장'의 슬로건을 '건강한 먹거리를 자랑하는 무병장수 전통시장'으로 삼고 다양한 먹거리, 볼거리, 체험거리 등을 펼치고 있다.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주관한 전국 문화관광형시장 '최우수 시장(S등급)'에 선정되기도 했다.

고창군청 지역경제팀 김선미 팀장은 "고창전통시장 상인회와 함께 복분자빵·장어빵이 지역특화상품과 한반도 첫수도 고창 대표하는 특산품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차별화된 마케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억 가득한  
**봄 여행**  
떠나보세요!

**"버스타고 고창 와서 농촌체험하세요"**

팜팜시골버스 4월부터 본격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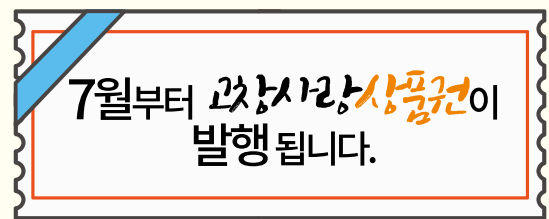
고창군의 농촌체험 특화프로그램인 팜팜시골버스가 4월6일부터 본격운영 된다.

팜팜버스는 11월까지 매주(토요일 익산역, 일요일 광주출발) 고창시외버스 터미널을 경유해 고창 관내 관광코스를 운행하게 된다. 4월 프로그램으로는 ▲팔기수확 체험 ▲고창읍성 관람 ▲청보리밭 관람 등으로 구성돼 있다.

주관여행사로 선정된 '썬해밀여행사'는 익산역에서 출발하는 토요일 운행의 팜팜시골버스 상품 상담·예약과 고객 관리 등을 진행하고, 현재 사전예약(<http://www.ktx7788.co.kr>)을 받고 있다. 광주에서 출발하는 일요일 운행은 고창농촌관광 팜팜사업단(단장 김수남, 063-563-8804)에서 상담·예약 가능하다.

### 4.6~5.12 주요 여행코스

- 1 새콤달콤 딸기 수확체험
- 2 청심식사 복분자알뜰배
- 3 고창읍성의 품 정취 즐기기
- 4 고창 청보리밭 축제로 맞이



### 고창사랑 상품권이란?

지역상권 활성화 및 공동체 강화를 위해 고창군에서 발행하고, 고창군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한 상품권으로, 지역 내 소비증가와 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로 건전한 소비분위기 조성고 고창군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지역화폐입니다.

### 발행계획

발행일 : 2019년 7월부터

종류 : 3종(1천원, 5천원, 1만원)

판매처 : 농협은행 고창군지부, 읍·면 지역농협등

사용처 : 고창군소재 상품권 가맹점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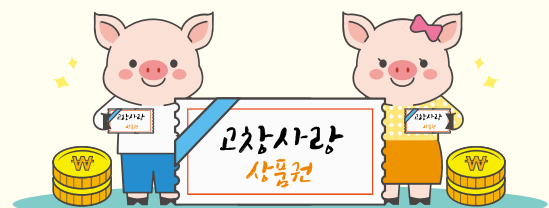
할인율 : 개인(5%), 가맹점 및 법인(없음)

### 가맹점 신청

신청대상 : 사업자등록이 된 고창군 관내 사업체

신청장소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지역경제팀, 읍·면사무소

문의 :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지역경제팀(063-560-2351)



##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6일 본회의장에서 제262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15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9년도 한 해 동안 집행부가 추진해 나갈 군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해당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고 고창군수로부터 제출된 15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과 차남준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영호부회장이 대표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지원조례안, 이경신운영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조만규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창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의 조례안 4건을 포함한 총 19건의 의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5,837억에서 농산물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 등 295억이 증액된 6,133억이 최종 확정됐다.

또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는 대표위원 최인규 의원과 외부위원 4명(홍순민, 오영택, 김현기, 이병섭)을 선임하였으며, 위원들은 2018년도 결산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꼼꼼히 찾아보고 개선 사항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한편 조규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지난 15일간 2019년도 업무보고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들과 보고자료 준비에 성실히 임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정하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과정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 반영해 금년도 업무계획에 알차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고, 영농철 이전에 각종사업들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빛원전조사특위 경주원전 방문



고창군의회 한빛원전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지난 7일 경주지역의 원전관련 주요시설인 월성원자력본부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당폐장)을 방문하여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에서 의원들은 월성원자력본부와 주변지역 주민과의 갈등요인을 묻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등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원전관련 비교견학을 통한 한빛원전 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 대응방안 모색의 시간을 가졌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영구처분시설 없이 습식과 건식 두 가지 저장방식으로 원전 내에 임시적으로 저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저장공간이 수년 후에는 포화상태가 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 건식저장시설의 저장량이 90%가 넘어서고 있어 증설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우리지역 인근 한빛원전도 습식저장으로 임시보관을 하고 있으나 총 저장량의 70%에 육박하여 계획대로라면 2026년 포화상태가 된다.

원전특위 소속 의원들은 보관할 곳이 없는 고준위 폐기물에 대한 해법으로 임시저장고를 늘리는 일시적인 해법보다 현실적이고 보다 안전한 처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하였다.

그 후 의원들은 한국원자력 환경공단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운반저장 처리 및 처분, 운영 및 폐쇄 후 관리 등에 관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시설을 돌아보는 등 향후 한빛원자력본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활용키로 했다.

한빛원전특위 임정호 위원장은 “원전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고준위 방사능폐기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원전특위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5.18 망언 규탄 결의문 채택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지난 2월 20일 제26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망언 자유한국당 규탄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고 모독하는 망언을 한 것과 관련해 지난 14일 자유한국당 의원을 규탄하는 성명서 발표에 이어 이번 결의문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문은 최인규의원이 대표로 낭독하였으며 결의문을 통해 고창군의회는 “자유한국당 당 차원의 공식사와 및 보편적인 역사인식을 가진 대중정당임을 스스로 밝혀야 한다.”며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5.18 민주화운동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모든 국민을 향한 공개 사죄와 세 의원의 자진 사퇴를 강력히 요구했다.

## 제262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의안처리결과

소관 위원회	의안 번호	의 안 명	제출부서	의결사항
합 계		19건		
운영위원회 (1)	92	고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발의	원안가결
자치행정위원회 (15)	9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창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원 발의	원안가결
	96	고창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원안가결
	106	고창군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원안가결
	87	고창군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과	원안가결
	88	고창군 항일독립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104	고창군 보듬이 나눔이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사회복지과	원안가결
	101	고창군 운곡읍지 생태체험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안	생태환경과	원안가결
	94	고창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공공청사, 주차장)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무과	의견서채택
	97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문화유산관리과)	원안가결
	98	고창 유교문화체험관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문화유산관리과)	원안가결
	99	고창일반산읍단지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 (체육청소년과)	원안가결
	78	고창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인구정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울력행정과	수정가결
	89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원안가결
	102	고창군 행정조직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기획예산담당관	원안가결
	90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건소	수정가결
산업건설위원회 (2)	93	고창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협약 동의안	축산과	원안가결
	103	고창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조례안	농업기술센터	수정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105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예산담당관	수정가결

## “고창갯벌서 바지락도 잡고, 맛있는 요리도 해먹어요”



**고창군 하전마을, 해수부 어촌체험 휴양마을 고도화사업 선정**  
2억원 국비 지원받아 바지락 특화요리 체험·시식공간으로 조성 예정

고창군이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에 선정돼 어촌체험휴양마을 소득창출을 위한 사업비로 2억원을 지원 받는다.

‘어촌체험휴양마을 고도화사업’은 체험안내소, 체험장, 숙박시설 등 어촌체험 마을 운영을 위한 기반시설을 만들어 체험객들이 즐겁고 편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번 해수부 공모선정으로 하전어촌체험휴양마을 안내센터를 바지락 특화요리 체험·시식 공간으로 조성해 체험객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하전마을’은 국내 최대 바지락이 생산되는 지역임에도 바지락 특화 대형식당이 없어 체험객들이 멀리 나가 식사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이번 공모사업으로 바지락 특화요리 전문점을 만들어 체험객 먹거리 불편을 해소하고 다양한 바지락 특화요리 프로그램 개발로 어촌체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전망이다.

고창군수는 “바지락 생산부터 체험, 먹거리를 연계한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어촌체험휴양마을의 새로운 수익 창출로 어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 고창군,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 설치 완료!!

“미세먼지로부터 어르신 건강 보호”



고창군이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노인들이 이용하는 관내 모든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했다. 이번 공기청정기(대용량)는 시설 면적, 건물 구조, 이용자의 수요 등을 고려해 보급했으며 경로당 59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군은 어르신이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제거율, 에너지 효율등급, 소음도, 규격 등 정보를 꼼꼼히 따져 제품을 선택했다.

이후에도 깨끗한 공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유지보수 업체에서 5년간 필터 교체와 점검서비스도 제공한다.



## “한반도 첫수도 고창 매력 알려요”

2019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 출범

폭넓은 나이, 지역, 직업군으로 구성된 기자단, 관광명소·맛집 등 다양한 소식 기대



고창군 온라인 홍보대사 역할을 수행하는 ‘2019 고창군 블로그 기자단’이 군청 상황실에서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모두 23명으로 구성된 기자단은 앞으로 고창군의 정책과 문화, 관광, 일상 등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일들을 취재해 개인

블로그와 고창군 공식 블로그(blog.naver.com/topgochang)를 통해 네티즌들에게 알리게 된다.

고창군이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한 기자들은 20~60대까지의 직장인, 여행·사진 전문 블로거, 대학생, 귀농귀촌 주부,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광주, 정읍 등 다른 지역 거주자도 선발돼 타 지역민의 입장에서 바라본 새로운 관점의 기사가 작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자단에게는 취재활동에 따른 소정의 원고료 지원과 함께 고창군이 주최하는 행사에 우선 참여할 기회가 제공되고, 활동이 우수한 기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기자단 기자증을 받은 오승현씨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고창군은 산과 바다의 자연환경과 곳곳의 문화유적이 조화를 이루고 미래를 향한 역동적인 비전을 갖춘 곳이라 생각 한다”며 “고창군과 관련한 다양한 블로그 기사로 공감의 장을 만들어 가고 싶다”고 활동 포부를 밝혔다.

## 고창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현황

### 사업개요

**위 치** : 아산면 인천강변로 201-95  
**시설용량** : 25톤/일  
**사업기간** : 2016. ~ 2020.  
**총사업비** : 13,500백만원(국3,292, 군10,208)

###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소각시설 위치는 2000년부터 아산면 대책위원회와 고창군이 협의하여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재활용품선별장 등 고창군 농어촌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2012년에 아산면 이장단 설명 및 주민공청회를 거쳐 아산면 대책위원회와 고창군이 2013년 협약을 체결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은 안전합니다

굴뚝에서 흰색 연기가 나오는데 해로운 것은 아닌가요?

굴뚝에서 나오는 흰색연기는 수증기로 대기의 찬공기와 굴뚝에서 배출되는 고온의 가스가 만나 수증기를 형성하며, 가장에서 주전지대물을 끌어들 때 들 수 있는 수증기와 동일한 것으로 오해에 오해해 주십시오.

쓰레기를 소각하면 냄새 처리는?

악취 발생 구역은 쓰레기 반입장 및 저장조로 발생 악취를 소각로의 연소용 공기로 사용 연소처리 하며, 소각 시 발생되는 악취는 오염방지시설을 거쳐 대기중으로 배출, 악취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소각시 발생되는 재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각 시 발생되는 재는 바닥재와 비산재로 분류되며, 바닥재는 매립장으로 운반 매립하고, 비산재(소각로에서 포집된 비산재)는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굴뚝원격감시체계(TMS)는 무엇인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 측정값을 환경부에서 24시간 감시하는 체계로, 우리군은 시설운영에 안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TMS를 적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 발생하는 다이옥신은 인체에 유해하다고 하는데?

소각시설에 다이옥신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배출가스를 철저히 제어하여 법적 배출허용기준 5나노그램 보다 1/50배 적은 0.1나노그램 이하로 설계 반영하여 안전합니다.

## “자랑스럽고 명예로운 100년의 삶을 기리다”



고창군, 신림면 한향순·부안면 이영에 여사 100세 맞이 마을 큰잔치 열어

### “여사님의 100세를 축하드립니다”

조용한 시골마을에 성대한 팡파르가 울려 퍼졌다. 고창군 신림면 환산마을 최고령 한향순 여사의 100세 잔치가 열린 것. 식이 시작되자 한향순 여사는 모두의 축하 속에 조심스럽게 떡케익을 잘랐다. 여기에 올망졸망한 5살 어린이들이 손 글씨로 생일 축하카드를 전달하자 환한 웃음으로 손녀들을 꼭 껴안았다. 51년의 세월을 모시며 어느새 같은 백발이 된 며느리 전순단(72)씨도 눈물을 흘렸다.

부안면 반룡마을에서도 이영에 여사의 백세잔치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고창군이 전국 지자체 처음으로 ‘100세 어르신 마을잔치’를 마련했다. 군은 역령의 100년 세월을 이겨낸 장수어르신을 지역에서 자랑스럽게 기리고 마을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는 기회가 되길 바랐다.

특히 잔치는 재능기부와 나눔 봉사로 진행돼 의미를 더했다. 고창자수 박미애 선생이 매듭작품을 선물했고, 한국판소리보존회 고창지부에서 판소리 한마당으로 흥을 돋웠다. 고창노인복지관에선 한국무용과 5080밴드공연을 재능 기부했고, 이웃한 어린이집 아이들도 함께해 남녀노소 뜻깊은 시간을 만들었다.

현재 고창군 관내에는 100세 어르신 29분이 생존해 있다. 고창군은 앞으로도 100세(천수, 상수)를 하늘이 내려준 나이라는 큰 의미를 되살려 마을 잔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창군 경로복지팀 최선임 팀장은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주도하고 나눔과 봉사, 재능기부가 어우러져 인심과 정이 살아있는 고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의 정신을 간직한 인재 육성을 위해 써주세요”

고창군 인재육성을 위해 장학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3월6일 대산면 화동서원(대표 김명종)이 고창인재 육성에 써달라며 고창군 장학재단에 3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다.

고창군 대산면 생활개선회(회장 강옥현)도 1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했고, 대산면 생활개선회장 강옥현, 부회장 박영희씨도 각 10만원씩 20만원을 기부해 의미를 더했다.

2월20일에는 전북옥외광고협회 고창군지부가 500만원, 상하면체육회 100만원, 상하면 기관 사회단체협의회 30만원, 서울시니어스타워(주)고창웰파크씨티에서 500만원을 인재 키우기 장학금으로 기탁했다.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금 전달도 이어졌다.

매일유업(주) 산하 진암 사회복지재단(이사장 김정완)이 지난 3월4일 고창군민 자녀 중 어려운 가정환경 속에서도 성적이 우수하고 모범이 되는 대학생5명에게 장학금 총 1000만원을 전달했다.

재경고창신림면민회(회장 김수원)도 고창군 신림면 관내 3개 초·중학교 입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경고창신림면민회는 가평초 9명, 신림초 5명, 신림중 5명 등 총 19명의 입학생에게 1인당 10만원씩 총 190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재경고창신림면민회 김수원 회장은 “고향사랑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탬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창군의 미래를 이끌어 갈 후배들이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 하겠다”고 전했다.

## 기부와 나눔으로 하나 되는 고창군



고창군 곳곳에서 훈훈한 이웃사랑 나눔이 이어지고 있다.

고창군 김대환(새마을지도자협의회)·강미정(꿈나무어린이집 운영) 부부가 3월12일 ‘찾아가는 이동군청(홍덕면) 현장을 찾아 군수에게 이웃돕기 성금(200만원)을 전달했다.

이들 부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적십자 위원으로도 활동하며 지역 봉사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 무장면 행정복지센터도 지난 2월26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무장면 이장들과 함께 독거어르신 80여명을 찾아뵙고 위한 사랑의 밑반찬을 전달했다.

지난해부터 모두 4차례 전달된 ‘무장면 사랑의 밑반찬’은 주민들로부터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날 협의체 밑반찬을 마련해 무장면 관내 외로운 독거어르신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을 방문해 밑반찬 전달과 애로사항을 들으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무장면 황한규 면장은 “따뜻한 이웃의 정을 나눠주시는 무장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이장님들에게 감사 드린다”며 “나눔과 봉사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군 부안면 새마을지도자회(회장 경만설, 김영남)도 경로당 41개소에 새해맞이 사랑의 떡국 나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

각 마을 새마을지도자, 부회회장 70여명은 2인 1조를 이뤄 각 마을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과 떡국 점심식사를 함께했다.

부안면 새마을지도자회 경만설 회장은 “떡국 나눔 행사를 통해 어르신들과의 훈훈한 만남으로 어르신들의 마음에 따뜻함을 채워드릴 수 있어 행복하다”며 “앞으로 나눔과 봉사 기부전국 고창군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 고창군 고창읍 ‘정담길 벽화 골목길’사업 완료

어둡고 칙칙했던 골목길에 아름다운 벽화 그려지면서 만족도 UP



고창군 고창읍(읍장 박병도)이 구도심지인 고창읍 성산길 일원에 도시경관조성 및 주민 편의제공을 위한 ‘벽화와 시가 있는 정담길’ 조성 사업을 최근 완료했다.

구도심권 마을들은 어둡고 좁은 골목길이 많아 청소년 탈선 등 주민 안전 위험요소로 지적돼 왔다. 이에 고창읍은 마을 일부구간에 태양광 가로등과 벽화를 그리고, 시구를 작업을 진행했다. 마을 일부 구간에 태양광 가로등을 설치했다. 또 벽화를 그리고 시(詩) 글귀를 적어 분위기를 한층 밝게했다.

## “사람중심” 교통문화 정착

-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 됩니다!
- 보행자 3대 위험행위 운전 중점 단속!
- 보행자 안전 지키기!

선진 교통문화 정착! 교통 법규 준수하여 행복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고 창 경 찰 서



기업탐방

산야초의 재발견,

선운도원

고창군에는 음식과 약은 그 근본이 같다는 '약식동원(藥食同原)'의 철학으로 우리 산야초의 참 가치를 찾는 기업이 있다. 2014년에 설립된 농업회사법인 선운도원이다. 선운도원은 바른 먹거리, 건강한 먹거리를 이웃과 함께 하겠다는 작은 바람에서 출발하여, 전통에서 미래의 가치를 찾는다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선운도원의 주요 제품은 조청이다. 선운도원은 조청을 라이시시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한 스푼씩 떠서 먹는 기존 약초조청에서 라이시시럽은 우리의 전통 단맛인 조청을 한식, 양식, 제과제빵, 음료 등 다양한 요리와 어울릴 수 있도록 연구한 끝에 부담 없는 용량과 가격으로 선보인 조청이다. 시나몬라이시시럽, 그린티라이시시럽, 인삼라이시시럽 등 다양한 종류의 현대화된 조청을 개발하여 간편하게 구운 식빵에 발라서 먹기만 해도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다.



선운도원은 우리의 조청과 식혜를 비영리 국제기구인 슬로푸드 국제본부가 진행하는 전통음식과 문화보전 프로젝트인 '맛의 방주(Ark of Taste)'에 등재시키는 등 전통적인 우리의 건강한 단맛을 보존하고 현대화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 또한 선운도원에서는 화산조청으로 고추장을 만드는 농촌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조청고추장 만들기는 조청에 대한 이해와 더불어 우리 전통음식 이야기, 고추장 만들기 등의 다양한 우리 문화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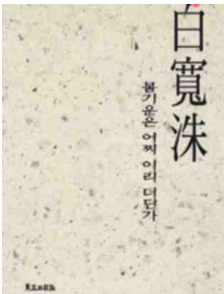


변윤자 대표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은 '소박한 밥상'에서 오는 것이다"며 "소박한 밥상이지만 손님을 위해 정성을 다한다는 자세로 우리 전통음식의 가치를 찾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TEL : 070-8299-2061

홈페이지 : www.seonfood.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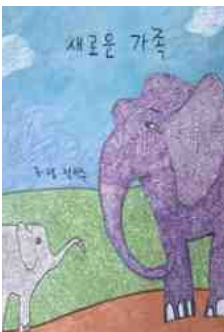
사서추천- 함께 읽고 싶은 책



백관수 : 불기운은 어찌 이리 더딘가

백관수 / 동아일보사 / 1996  
군립(기증자료실)  
911.06 윤73 ㄱ

근초 백관수는 성내면 생근리에서 태어나 간재 전우 문화에서 한학 공부를 하였으며, 사서삼경을 통달하고 조선 말기 구시대와 근세 격돌하는 혼란과 격동의 시기를, 일제 식민지 시대를 그리고 해방과 건국의 세대를 살아온 대표적인 우리 고창의 독립운동가이다. 교육인, 언론인, 독립운동가, 정치인 등 다양한 활동으로 그의 사상과 이념을 피력한 바 있다. 이 책은 근초 백관수 선생의 독립운동 활동과 조국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 2019년, 우리 고창의 인물이자 우리나라의 인물인 근초 백관수 선생의 족적을 뒤늦게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새로운 가족

전아수 / 엘리 / 2017  
성호, 무장, 아산 작은도서관  
911.06 윤73 ㄱ

사자 떼에 쫓기고 있던 어린 코끼리 한 마리를 엄마 코끼리는 가족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나는 답답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결국 밖으로 뛰쳐나온 나는 가족과 떨어져 철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다보니 가족과 떨어져 슬프고 힘들었을 어린 코끼리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죠, 마침내 사랑하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코끼리는 다르며, 모두가 서로 돕고 아껴주며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엄마의 말을 이해하게 됩니다. 짧지만 깊은 여운을 남기는 이 이야기는 제주에 사는 꼬마 작가 전아수의 세 번째 동화로, 실제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임양과 가족'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유년 소년의 상상력과 인간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을 느껴보세요.

고창군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구인/구직자 개별별 상담 및 DB 구축

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 : 상생경제과 일자리창업팀(☎560-2366)

연번	업 체 명	인원	모집직종	근무조건	마감일	근무지
1	석정례저주식회사	1	프론트사무원(남)	연봉 2,500만원 3교대근무(근무스케줄에 따라 조경가동/타력적휴무제) 시급 8,350원 주6일근무/08:00~17:00	채용시	고창읍
2	석정례저주식회사	1	호텔미화원	시급 8,350원 주6일근무/08:00~17:00	채용시	고창읍
3	대원영(영)	1	단순경리사무원	시급 8,350원 주5일근무/10:00~17:00 *시간협의가능	3.29	고창읍
4	주식회사 동산유지	1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00~17:00	채용시	고수면
5	성산식품	1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7:30 *전입근무가능	채용시	고수면
6	연경전자(주)	2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2교대근무 1조 08:00~17:30(전입시 19:50) 2조 19:50~(익일)08:00	채용시	고수면
7	연경전자(주)	1	물류배송원	월 201만원이상(경력자협의가)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고수면
8	이앤지푸드	5	생산직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8:00	채용시	부안면
9	이앤지푸드	2	납품및배송원 (1톤,3.5톤)	연봉 2,500만원~3,600만원 주5일근무/08:00~18:30 *경력2년 이상**	채용시	부안면
10	주식회사 진영그린개발	1	크락사운전원	월급 270만원~300만원 주6일근무/08:00~17:30 *경력3년 이상**	채용시	성내면
11	매일유업상하공장	2	생산직	월급 200만원~220만원 주5일근무/08:00~18:00 *계략기간(12개월)*	채용시	상하면
12	해리콘크리트	1	단순노무원 (지게차운전)	월급 220만원 주6일근무/토요일계주근무 월-금 07:30~18:00 토 07:30~17:00 *계략에 따라 변동가능*	4.15	해리면
13	해리콘크리트	1	사무직	급여 회사내규에 따른 주6일근무/토요일계주근무 월-금 07:30~18:00 토 07:30~17:00	4.15	해리면

함께 사는 세상



제1회 고창한반도

## 시농대제

“한반도 농업의



을 피우다”

일시 : 4월 19일(금)

장소 : 고창읍 고인돌공원 일원

제16회  
한반도 첫수도 고창

## 청보리밭축제



2019/4/20/토 ~ 5/12/일

고창군 공음면 학원관광농원 일원